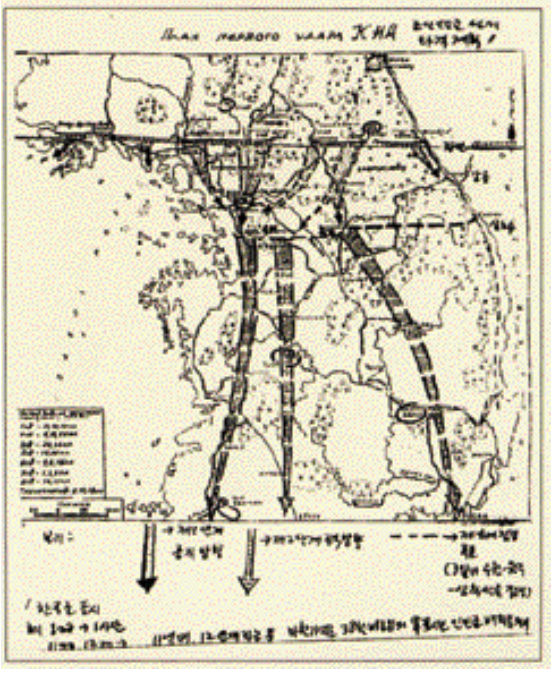
Q 북한군의 기습남침 작전계획은 누가 작성했을까?

A 북한군 지휘부는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휘하에 1950년 4월부터 실시한 소련 신형장비의 조작연습 및 대부대훈련에서 나타난 결점을 보완하는 부대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기습공격의 징후를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도하에 작성된 남침용 '선제타격 작전계획'

위장하기 위한 위장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김일성은 '평화'를 남발한 말잔치 속에 진실을 숨긴 채 기습적 전면 남침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총참모부에 지시했다. 작전계획은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과 새로 부임한 바실리에프 소련 군사고문단장이 중심이 돼 1950년 5월 29일에 완성했다.

이 작전계획의 명칭은 이른바 '선제타격작전계획'으로서 원래 러시아어로 작성된 것을 총참모장 강건의 감독 하에 소련군 출신 북한군 포병사령관과 공병국장 등이 극비리에 한글로 옮긴 것이다. 이것은 작전계획 수립에 소련 군사고문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다. 당시 북한군 총사령부 고급간부들이라고 해봤자 사단급 이상의 작전을 치른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천한 군사경험으로서는 군단급 작전계획을 세우기에 역부족이었다. 반면에 소련 군사고문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노련한 군사전문가들이었다.

남침 개시일은 김일성의 제의에 따라 6월 16일 슈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의 최종 동의를 얻어 6월 25일로 정해졌다. 김일성은 공격개시가 더 늦어질 경우 북한군의 전투준비에 관한 정보가 남한으로 새어나갈 수 있으며, 게다가 장마가 시작되는 7월에는 부대기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6월말을 선호했다. 그래서 그는 난색을 표명한 소련 군사고문관들을 설득했고, 스탈린의 동의까지 받았던 것이다. 공격개시일을 일요일로 잡은 까닭은 국군의 경계가 소홀할 것으로 보고 기습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생각에서였다. 한마디로 북한의 대남 기습침공 작전계획은 김일성과 스탈린이 긴밀히 협의한 끝에 치밀하게 검토되고 작성된 것이다.

본 작전계획은 1개월 기간으로 3단계로 짜여졌고 크게 전투명령서, 부대이동계획, 병참보급계획으로 구성됐다. 공격력을 집중해 금천 - 구화리, 연천 - 철원, 화천 - 양구 지역 등 세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한 후 3

일 내에 서울 부근의 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하고, 계속해서 그 전과를 확대하면서 남해안까지 진출해 미군이 한반도로 잔입해오기 전에 전 남한을‘ 해방 ’시키겠다는 것이었다.

6월 20일, 소련 군사고문단 작전팀은 이‘ 선제타격작전계획 ’을 극비리에 북한군 각 사단에 하달했다. 여기에 설정된 전투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제1단계 :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그 주력을 섬멸하는 단계로서 3일 내에 수도 서울을 점령한다. 위도상으로는 서울(수원) - 원주 - 삼척선까지 진출한다.

제2단계 : 전과를 확대하고 국군예비대를 섬멸하는 단계로서 군산 - 대구 - 포항까지 진출한다.

제3단계 : 국군을 소탕하고 남해안으로 진출하는 최종 단계로서 부산 - 여수 - 목포를 점령한다.

제1단계 작전은 북한인민군의 지상군 총 10개 사단을 2개 군단의 공격집단으로 편성하고, 그 중 제1군단을 주공으로 삼아 금천 - 구화리, 연천 - 철원에서 38도선을 돌파하여 북으로부터 서울을 압박하도록 하고, 제2군단을 조공으로 삼아 화천 - 양구에서 38도선을 넘어 서울 동측방과 수원 방향으로 우회시켜 두 군단의 포위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한 후 수원 - 원주 - 삼척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제1군단이 서울을 점령하면 바로 재편성을 거쳐 서부축선과 중부축선을 통해 목포 - 여수 방면으로 진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1군단은 주공부대인 제3사단과 제4사단을 제105전차여단(-)의 지원 하에 철원 - 포천 - 의정부 축선과 연천 - 동두천 - 의정부

축선으로, 제6사단(- 1)과 제1사단을 제203전차연대의 지원 하에 금천 - 개성 - 문산 축선과 구화리 - 고랑포 - 문산 축선으로 투입하며, 제6사단의 일부 부대로 옹진반도와 김포반도를 공격하도록 했다.

제2군단은 주력인 제2사단과 제12사단을 화천 - 춘천 - 가평 방향과 양구 - 홍천 - 수원 및 원주 방향으로 투입하고, 제5사단을 양양에서 강릉 - 삼척으로 진출하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제766부대와 제549부대를 동해안의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국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부산 - 마산까지 치고 내려가면서 제2군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했다.

제1단계 작전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던 제2 · 제3단계 작전계획은 서울이 점령되면 바로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북한군 지휘부는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국군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제2단계부터는 신속히 전과를 확대하고 국군 예비부대를 격파하면서 군산 - 대전 - 대구 - 포항 선까지 진출하고, 연이어 제3단계로 전환해 잔존 저항세력을 소탕하면서 부산 - 마산 - 여수 - 목포 선까지 진출할 계획이었다.

제2 · 제3단계 작전은 국군의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미군의 증원이 있기 전에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부대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에 따라 신속한 기동에 중점을 두어 제1단계 작전과는 달리 군단 간 상호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4개의 축선별로 국군을 각개 격파하여 전략종심으로 깊숙이 진격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생각해 봅시다!!

1. 북한의 남침작전계획이 작성된 과정은?
2. ‘ 선제타격작전계획 의 주요 내용은?